

13th

창립13주년 기념 후원의밤

기쁨과 열정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나눔에 초대합니다



2012년 12월 5일(수) 오후6시30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

프로그램

- 18:00~18:30 | 참가자 등록
- 18:30~19:00 | 여는 순서
| 만찬(참가자 소개)
- 19:00~20:30 | 인사말씀
| 재단 영상
| 따뜻한 프레젠테이션: 여자, 기부를 권하다
| 객석 토크
| 공연 나눔: 블루스계의 디바 강허달림

- 후원금은 딸들에게 힘을 주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317-0003-6724-91 한국여성재단
전화 02-336-6364/6463 팩스 02-336-6459 이메일 womenfund@womenfund.or.kr

딸들에게 희망을

www.womenfund.or.kr 2012. 5호



특집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2012.11.25~12.10)

칼럼 11월의 어느 괴로운 날
인터뷰 만 명이 만드는 세상의 희망
인권 감수성의 확장과 연대의 정신을
문화나눔 <버라이어티모놀로그>에 귀기울이다

 한국여성재단
KOREA FOUNDATION FOR WOMEN

딸들에게 희망을

2012. 5호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트위터 twitter.com/womenfund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womenfund.do

발행 및 편집인 조형
 기획편집 (재)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발행일 2012년 11월 28일
 등록번호 마포마00061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5길 13(서교동 448-17)
 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디자인인쇄 오렌지(02.2277.9234)



한국여성재단은 "우리 딸들의 밝은 새천년을 연다"는
 기치로 각계각층의 리더들과
 124개 비영리 여성단체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공익재단이자
 여성을 위한 유일한 민간공익재단입니다.

"딸들에게 희망을" 소식지는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03 사립문 무지개의 나라에서 띄우는 편지
 조형 /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특집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 04 칼럼 11월의 어느 괴로운 날
 오한숙희 / 여성학자·칼럼니스트
- 06 기부자 인터뷰 기부자가 만드는 안전·안심사회
 강원화 기부자
 김은미 기부자
- 09 문화나눔 '버자이너 모놀로그'에 귀기울이다
 유재경 / 한국여성재단 W.C 기자단

나눔과 공감

- 10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육사업
- 12 '치유하고 나누는 삶'에 대한 희망을 키워요
 희망키움뱅크
- 14 모든 경계엔 꽃이 핀다 - 다문화 사회를 향하여
 2012 BB희망날개 워크페스티벌

소식

- 16 재정보고
- 18 후원현황
- 20 재단소식

COVER STORY 꽃이 피다 지다 피다 mixed media on canvas 104x74cm 2007, 류준화

미술의 사회적 역할, 특히 여성주의 미술의 가능성을 오래 고민하고
 실천해 온 화가 류준화. '여성의 이미지가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기보
 다는, 좀 더 신화적이고 영적인 여성 이미지들이 생겨나서 경계를 넘
 으려는 모든 여성들에게 힘이 되고, 자유로운 여행에 수호자와 위로가
 되어주길' 바라는 그녀의 작품들은, '자신의 몸을 희생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여성들의 욕망. 몸이 희생되더라도 경계를 넘는 여성들의 새
 로운 삶과 세계에 대한 판타지'를 담고 있다. 1998년 경북 봉화군 청
 량산 비나리 마을로 귀농한 뒤, 현재 산골미술관을 운영하며 예술을
 매개로 마을 주민들과 공동체적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사립문

무지개의 나라에서 띄우는 편지

“무지개의 나라 Rainbow Nation”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세계여성재단네트워크의 정기회의가 열리는 요하네스버그에 있습니다. 전 세계
 에서 모인 64명의 여성 참가자들이, 각 국의 여성재단이 당면한 비슷비슷한 고민거리와 문
 제해결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배우고 협력할 일들을 찾으며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
 다. 특히 사업의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공통 평가체계를 만들기 위해 며칠 째 마라
 톤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사업의 평가방법과 도구를 개발하게 되면, 한
 국여성재단 사업에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 기부금 조성액이 크고, 지원사업 규모 면에서는 세계 여성재단 가운
 데 10위권 안에 들만큼 성장한 한국여성재단에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심시일반
 늘 정성을 모아주시는 개인 후원자들과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인 파트너 기업들, 그리고 지
 원사업 현장에서 수고하는 파트너 단체의 여성공익 활동가들 덕분에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짐작 못한 바는 아니지만, 인종차별이 해소되었다는 이곳 사회에는 아직 흑백 분리가
 완전합니다. 호텔 안팎에서만 보아도, 잔디 볼링은 백인 남성의 전용물이고 모든 일용 잡직
 은 흑인들의 몫입니다. 그래도 흑인들은 전쟁 없이 고향나라에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
 이라고 여기는 듯합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데려다준 30대 후반의 택시기사 아론은 가난해
 도 조상이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기에 부모와 부족이 사는 마을을 방문할 수 있어 행복하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딸 '희망이'와 “그 분이 주신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살 배기 아들
 의 아빠입니다. 월세가 오를 때마다 이사를 가야해서, 딸이 학교를 자주 옮기지 않도록 외가
 에 맡겨 두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교육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남들
 보다 더 열심히 장시간 일을 한다는 그는, 세상에서 게으름과 이유 없는 폭력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말합니다. 낯선 땅을 방문한 여행자에게 스스럼없이 가족 이야기를 나누며 안도감과
 경쾌한 웃음을 주던 아론의 뛰어난 소통능력과 유머감각은 약속된 미래가 보내준 선물이 아
 닌가 싶었습니다.

서울 재단사무국은 지금, 2012년도 지원사업들의 각종 보고회를 비롯하여 마무리하는 모임
 들과 12월 창립기념 후원행사를 준비하는 일들로 분주할 것입니다. 올 한해 관계된 모든 분
 들의 노력이 지원받는 이들 뿐만 아니라 기부해주신 분들께도 만족스러운 결실로 맺어지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 가족 한분 한분께 일년동안 수고하신 만큼 행복이 더해지기를 기원
 합니다. W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조형

11월의 어느 괴로운 날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지속시키는 것은 인권에 대한 폭력이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제거하는 것이 인권의 이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11/25)과 세계인권의 날(12/10) 사이의 16일간을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으로 지정하고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세계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람 일은 바로 코 앞도 모른다고 했던가. 단골 치과에 들어갈 때만 해도 나는 경쾌한 마음이었다.

“치과 치료비 외상하는 환자는 나밖에 없죠? 병원 오면서 지갑 놓고 나오다니...정신을 어디다 놓고 사는지...” “아니예요. 지갑 찾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영수증을 내주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김○○팀장에게 나는 떡봉지를 내밀었다. “외상값 이자예요.” “어머, 안 그러셔도 되는데...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 “야. 빨리 계산해 줘.”

김팀장의 입에서 막 ‘다’ 자가 나오려는데 갑자기 벼락같은 남자의 목소리! 화기에애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박살나고 말았다. 치료를 막 마치고 나온 환자 같았다.

“자기 입으로 팀장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 김간호사라고 해야 맞지. 어디서 버릇없이 자기를 높이고...내가 아침에 전화했을 때 팀장이라고 해서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알아?” “아, 네, 죄송합니다.” 당

황한 김팀장은 일어서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육십은 훨씬 넘어 보이는 그 남자는 ‘팀장 김아무개입니다’라고 해야 맞는다고 지적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정중한 사과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그럼 나한테도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야지. 너희들만 높이냐? 원장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

그제서야 나는 이것이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공격성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공격의 흐름을 끊기 위해 뭐든 해야 했다. “저, 예약 좀 잡아주세요. 어머니 틀니가...” “아, 예. 언제쯤이 좋으신지...” 그러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의 목소리를 삼켜버리고 말았다.

“아저씨, 이제 그만 하시죠” “아줌마가 뭘데 끼어들어! 모르면 가만있어!” “아저씨가 여태 소리 질러서 다 알아요. 나도 아저씨랑 똑같은 이 병원 손님이에요. 간호사들을 야단치기 전에 공중예의부터 지켜주세요.” “어디서 건방지게...”

눈을 부라리며 내게 삿대질을 하는데 순간 ‘때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일었다. 그러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같이 목소리를 높이자 그 남자는 말꼬리를 흐리며 등을 돌려 진료실을 향했다. 마침 무슨 일인가 싶어 접수대 쪽으로 나오는 원장과 마주쳤다. “원장님, 제가” 젊은 원장 앞에 선 그 아저씨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목소리는 모기처럼 속삭였다.

치과병원을 나와 10분 여를 걸어 지하철을 타고 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출입문 바로 옆자리에 앉아 몸을 기댔다. 김팀장이 떠올랐다. 울상이 되어 내게 연신 미안하다고 하던 모습이라니. 전화를 걸었다. “마음쓰지 마세요. 그 아저씨 자기 인생의 불만을 만만한 우리에게 화풀이 한 거예요. 그런 남자들이 있다니까요. 김팀장 잘못 없으니까 괜한 자책 말고 내게도 미안해할 거 없어요. 나는 원래 그런 일에 싸우러 다니는 사람이니까, 운동권! 알죠? 하하하” 나는 정말 애써 웃었다. 나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김팀장과 뒷풀이를 하고 나니 맘이 좀 가벼워졌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몇 번 하자 진정이 되는 듯했다. 그런데 웬걸!

“야, 뒤로 좀 가. 내가 짐이 있어서 그러잖아”


명령조의 남자목소리에 눈을 떴다. 내 바로 옆에 서 있는 중년남자였다. 놀랍게도 그는 출입문을 향해 서서는 유리창에 비친 뒤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을 공격하고 있었다. 반말에다가 손가방을 뒤로 움켜쥐어 툭툭 치기까지 하고 있었다. 그가 말한 짐이라는 건 누구나 흔히 들고 다니는 작은 가방이었다. “몰라, 나한테 가방으로...몰라...짜증나...” 마침 통화 중이던 친구에게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여성은 만원 지하철 속을 비집고 뒤쪽으로 피했고 남자는 천연덕스럽게 출입문을 향해 서 있었다. 다음 역에

서 우연히 그 남자 뒤에 서는 여자는 똑같은 공격을 당할 게 뻔했다.

두 남자로부터 어처구니없는 폭력을 당한 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심장이 계속 쿵쾅거리고 머리로 열이 솟아 몇 번이나 벌떡벌떡 일어났다. 간접폭력의 후유증이 이런데 직접 피해자와 그 가족은 어떻게겠는가.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이 이런데 성폭력은 어떤 것인가.

전세계에 걸쳐 여성에 대한 폭력은 쉽 없을 뿐 아니라 더욱 광범위하게 더욱 잔혹하게 번져가고 있다. 여자어린이가 피해자가 되고 국가가 가해자가 되고, 그러나 정작 더 무서운 건 여성폭력에 대한 불감증이다. 당한 사람만 억울한 게 세상이치이니 여자들이 알아서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사회적 책임 회피, 그런 시대, 그런 나라에 태어난 여자들의 팔자소관이라는 체념, 세상이 그런 걸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더 무서운 것이다.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16일 간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이토록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는 한 여성해방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고정희 시인의 시를 절감한다.

“억울한 여자들 일어설 때입니다/귀머거리 여자들 일어설 때입니다/병어리 여자들 일어설 때입니다/ 눈뜬 장님 여자들 일어설 때입니다/서러운 여자들 일어설 때입니다/버림받은 여자들 일어설 때입니다/낙인찍힌 여자들 일어설 때입니다/해방전선 여자들 일어설 때입니다/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길이요 하늘이기 위하여/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요 등불이기 위하여” 

글_오한숙희_여성학자·칼럼니스트

만 명이 만드는 세상의 희망

안전·안심 사회를 위한 〈만만클럽〉, 강원화 기부자를 만나다

여성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할까. 월 1만원을 정기 기부하는 1만 명의 조직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국여성재단의 만만클럽 캠페인은 그런 생각으로 시작되었다. 현실은 낭만적인 생각과 달라 2010년도에 시작한 캠페인은 올해로 3년을 맞이했으나 후원회원은 140명.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캠페인에 기부하기를 주저하는 많은 시민과 기업들을 만난 터라 140명의 회원은 매우 소중하기만 하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원소 기부자 강원화 님을 만났다.



안전·안심 사회는 우리 가족의 1순위 고려 대상

강원화 기부자를 설명하는 수식어는 다양하다. 기업에서 홍보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그녀는 현재 여성코칭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코칭 전문가이고, 두 아이의 엄마이다. 더불어 한국여성재단의 제 1기 기자단, '100인 기부 릴레이'의 3년차 이끔이, 그리고 만만클럽 회원이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만만클럽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궁금했다.

“안전·안심 사회 만들기라는 만만클럽의 취지가 좋았어요. 남편의 직업이 경찰이라 직업 특성상 힘든 사건 사고를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안전 안심한 것은 1순위 고려대상이거든요. 월 정기 1만원 기부는 참 익숙해요. 그런데 그 만원의 기부자가 만 명이 모이면 재단의 독립적인 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이런 효과가 생기는구나. 그것이 명확하게 다가와서 참 좋았어요. 제가 좀 목표지향적인가봐요. 만 명만 되면 되는 것 아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만 명...되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몇 명이나 되었을까 궁금했었어요.”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것을 건너뛰는 사회

현재 14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대답에, 기대가 컸던 만큼 만 명에 아직 한참 미치지 못한 숫자가 그녀는 많이 아쉬운 듯하다. 그러다보니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왜 여성에게, 그리고 특히 여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는 기부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흘러가게 되었다.

“변화의 속도가 급격하게 빠르면, 뭔가를 건너뛰고 다음 것을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의식의 점핑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기술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은 상관없이 있는데, 우리의 의식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죠. 사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채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여성리더시대, 여성시대 이런 표면적인 이슈가 굉장히 평등한 것처럼 이야기되어져 오다보니까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본질이 있는데, 그것을 건너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다 되었잖아. 무슨 여성이야. 오히려 남자에 대한 차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성폭력의 문제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건너뛰고 싶겠지만 건너뛰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분명한 지향, 그러나 좀 더 편안한 안내를

우리의 이야기는 현실의 아쉬움에 대한 토로와 공감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사람에 대한 애정과 소통의 욕구가 큰 그녀답게, 그보다는 여성의 폭력적 현실을 들여다보기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고, 그 과정을 통해 얻어진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싶어 했다.

“사람들이 건너뛰면 안 되는 것을 건너뛰는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콕콕 찌러서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방식이 조금만 날카로워도 사람들은 더 외면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이미 건너뛰었다는 그런 핑계로 굳이 안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봐야 할 것들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 할 때에는 그들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에 조금 편안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향은 분명히 하되, 외면하고 싶어 하는 이들의 의식 안에서

저항이 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도 필요한 것이기도 하구요.” 그녀는 반대로서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대한 구체적 설계 속에서, 이를 함께 만들고 제안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고 부연하였다.

내 삶의 구호는, ‘인류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렛대의 중심축, 여성!’

“저에게는 거창하지만 구호가 하나 있어요. ‘인류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렛대의 중심축은 여성이다’라는. 지렛대의 중심축을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지잖아요. 저는 여성이 지렛대의 중심축이라고 생각해요. 여성 한명이 제대로 서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여성들은 너무나 많은 가지들을 가지고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주변인들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극을 줄 수 있는, 나아가 사회를 제일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가 여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대의 여성은 물리적·사회적 폭력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사회를 회복시켜 나갈 힘도 바로 여성들에게 있다고. 그러니 힘내자고. 그리고 우리의 바람을 즐겁게 그려가 보자고. 그런 힘찬 격려를 받은 만남이었다. **W**

인권 감수성의 확장과 연대의 정신을 국가인권위원회 김은미 기부자를 만나다

여성을 위한 안전 · 안심 사회에 대한 우리의 바람은 여성인권의 측면에서 아직도 나아갈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우리사회 여성 인권 현실을 체감하는 곳,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은미 기부자를 만나보았다.



여성인권에 대한 이슈가 구태의연한 주제로 받아들여지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가 대화의 첫 화두가 되었다. “법·제도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해서인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른 나라에 없는 법·제도가 우리나라에 갖춰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제도들이 여성인권을 실제로 증진시키고 있는가를 봐야지요. 형식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관행이나 의식,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제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여성인권의 증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사회적 뉘앙스에는 인권에 대한 중대한 오해가 깔려 있다. “우리 사회가 인권을 피해자 중심, 약자 중심으로만 국한시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민주화의 과제가 절박했던 과거의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돼요. 그러나 인권에 대한 접근은 보호^{protection}와 증진^{promotion}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보호부터 해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와 함께 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중

요한 차별이나 침해영역에서 인권 수준을 좀 더 증진시키는 접근도 있어야 해요.”

김은미 기부자는, 여성의 리더십이 많이 향상된 오늘날에도 사회적 소수자라는 의미가 여전히 여성에게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연대의 정신을 강조했다. “여성폭력에 대해 어떤 사람은 아동성폭력만, 가정폭력만, 성매매만... 이렇게 파편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폭력의 양상은 다양하지만, 그 뿌리에는 가부장적인 의식과 관행이 밑바탕에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인식하고 대항하는 ‘연대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더불어 여성 스스로 겪게 되는 차별에 대한 경험과 감수성을 다른 소수자의 차별문제에도 ‘확장’시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고 안심한 사회, 딸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우리 여성들은 어떻게 연대해야 할까. **W**

〈버자이너 모놀로그〉에 귀기울이다

붉은 의자가 가득 찬 지하 소극장. 주위를 둘러보니 대부분 여성 관객이다. 공연이 시작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건만, 좀처럼 빈자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연극은 연기자 임성민이 사회자로 나서 ‘버자이너 모놀로그’를 우리 말로 옮기면 무엇일까라는 낯뜨거운 질문으로 시작한다. 사회적 비속어 또는 금기어로 생각되어,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쓰지 않을 이 단어를 이 연극에서는 수없이 듣게 된다. 하지만 선정적인 말들로 가득한 이 연극에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는 ‘여성의 몸과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고 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소리 내어 말하자’라는 것이다.

연극 〈버자이너 모놀로그〉는 미국의 사회운동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이브 앤슬러가 200여 명의 다양한 인종의 여성들과 나눈 이야기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2001년부터 국내에서 공연된 이 작품은 초기에는 1인 배우가 이야기를 풀어가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여 지금의 형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공연은 한 명의 사회자와 두 명의 게스트가 등장해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며 여성의 ‘몸’에서 시작해 ‘여성’으로 주제를 확장해 다양한 이슈를 선보인다. 총 14개의 독백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서도 위안부 할머니, 결혼 이주여성, 성적소수자, 성폭력을 당한 아이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동안 애써 외면해 왔던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치게 된다.

한편, 이 연극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내용이 추가

되곤 한다. 원작자인 이브 앤슬러는 한국 관객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시를 지어 보내고, 자신이 입양한 아들 부부의 출산을 지켜보고는 연극에 ‘출산’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다. 앞으로 또 어떤 사회적 이슈에 닿아 어떤 모습으로 관객을 찾아오게 될까. 연극의 막이 내리기도 전에 벌써부터 다음 연극을 기대한다. **W**

글_유재경_한국여성재단 W.C 기자단

문화 나눔에 참여한 기부자들의 관람평

손은정 기부자 ● “어린이의 성폭력에 관한 독백을 보았을 때는, 내 주위에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가슴이 철렁할 만큼 사실적으로 다가와서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의 성에 대해 함께 존중하고 같은 여성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애순 기부자 ● “남편과 함께 연극을 보았는데, 남편 또한 여성을 이해하려 노력하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성들도 이제 솔직하고, 때론 대담해질 필요성을 느꼈어요.”

변정선 기부자 ● “여성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소중한... 다루고 감싸줘야 할, 신체의 가장 중요한 일부라는 걸 한 번 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유경미 기부자 ● “이 연극을 보고나면,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남성들은 ‘뇌’가 깨어나게 될 것 같아요”

본 공연은 주식회사 〈랑〉 기획사 후원으로 한국여성재단 기부자들에게 문화나눔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육사업



작고 비쩍 마른 몸매, 까탈스럽고 딱한 아이. 동네에서 현경이는 그런 아이였다. 차가운 세상살이에 지쳐버린 아빠는 엄마와 헤어진 뒤,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작은 현경이를 할머니 품에 맡겨놓고 떠나버렸다. 안쓰러운 마음에 품에 한번 안아주기라도 할라치면 무엇이 그리 화가 나는지 계속 울어대는 통에 동네 어르신들의 내민 손이 머쓱해지는 일이 왕왕 있곤 했다.

지난 7월, 현경이가 사는 전라북도 완주군에 고산향 새싹아동돌봄센터가 생기고 난 뒤, 변화가 찾아왔다. 동네 아줌마가 센터의 선생님이 되고 현경이의 엄마가 되어주자, 이내 곧 센터 선생님의 가족도, 동네 어르신들도 현경이의 아빠, 언니, 가족이 되었다. 마을이 가족이 되어 품어준 현경이는 방긋방긋 웃음 많고 밝은 사랑스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현



경이 뿐인가. 젊은 엄마도 힘들다는 육아를 칠순이 넘는 나이에 혼자서 감내해야 했던 현경이 할머니의 주름진 입가에도 웃음이 흐르기 시작했다.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다는 생각에 도망치듯 떠났던 현경이의 아빠도 고산향 새싹아동돌봄센터와 동네 사람들의 손길에 희망을 가지고 다시 현경이 옆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지난 10월 23일. 현경이의 첫 생일이었다. 남들 다한다는 돌잔치지만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현경이네 가족에게는 그저 '바람'이었다. 그런데 그 바람을 온 동네가 함께 이루었다.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 돌잔치를 준비하고 현경이 할머니도 어렵게 모은 돈을 꺼내 떡 한말을 준비했다. 여느 다른 돌잔치의 엄마들처럼 센터 선생님들도 고운 한복을 차려 입었다. 면장님, 교장선

생님, 온 동네사람들이 함께 모여 늦둥이 현경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현경이를 돌보며 아끼는 마음으로 온 동네가 한 마음으로 시끌벅적했던 이 날, 지역신문사에서도 찾아와 기쁜 날을 함께 했다.

최근 저출산 고령 사회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전사회적 책임이라는 사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관련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보육 서비스는 사회경제적 환경 및 보육 수요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



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거나 다양하지 않고, 농산촌 지역에는 지원되지 않는 곳이 많아 보육 사각지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한국여성재단은 사회 전체가 미래세대의 성장을 돕고, 마을이 아이를 보호하고 키우는 사회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후원을 받아 2010년 봄부터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보육사업'을 진행하였다. 지역 여성들에게는 직업능력 개발 및 보육사라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아이들에게는 전문적인 돌봄을, 부모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확대하고자 하는 바람. 그 바람을 가지고 올해에는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광주, 부산)과 농산어촌(충북 제천, 경북 봉화, 전북 완주)의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지난 1년여 동안 두레아동돌봄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8곳에 돌봄센터들이 문을 열었고, 50명의 보육사 선생님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되었다. 총 2,044가구와 2,798명의 아이들이 보육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코믹대마왕 상현, 새끼공주 보경이, 동생 잘챙기는 의원이, 초절정 꽃미남 수현이, 엉뚱매력 난화, 못말리는 절친 서경이와 유영이...처음 만나던 날 쑥스러움에 웃기만 했던 아이들은 지난 1년 동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많이 놀았다. 그 사이 아이들에게는 언니, 형이 생겼고 선생님들과도 흠뻑 정이 들었다. 그렇게 지난 1년간 서로에게 '가족'이 되었다. 홀로 있는 아이들이 없도록, 이웃들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했던 아이들에게 따스하고 든든한 가족이자 친구가 되어준 보육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아이를 돌보며 함께 가족이 될 때, 아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우리의 바람 또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돌봄 공동체에 대한 꿈은 우리 모두가 나누고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 꿈의 실현을 위한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 후원하기 www.womenfund.or.kr

‘치유하고 나누는 삶’에 대한 희망을 키워요

희망키움뱅크 : 저소득층 여성가장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한국여성재단의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으로 희망을 키워낸 김주현 사장. 김주현 사장은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중, 두피 스케일링을 받는 고객들이 자세 때문에 불편해 하는 모습을 보다가 본인이 직접 두피관리 도구를 개발, 특허 등록까지 마친 상태다. 최근에는 두피관련 전문회사와 업무협약까지 체결하였다. 본인이 개발한 두피관리 도구를 이용하는 피부관리실 1호점이 부산에 문을 열었고, 창원과 진해, 거제, 김해 등에서도 지점 신청이 논의되고 있다.



자수성가한 창업가들의 성공 스토리가 그렇듯, 김주현 사장에게도 인생의 고비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 시작한 전자대리점은 다섯째의 임신·출산으로 남편에게 맡긴 사이 어려움을 겪었다. 가게를 정리한 후 취직한 남편은 마침 시작된 IMF로 회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방향을 계속하였다. 남편을 떠나 다섯 아이를 데리고 친정이 있는 부산에 내려온 김주현 사장은 뒤늦게 확인된 카드빚으로 인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3년 동안 아이들에게 우유 한 번 안 먹이고, 마트 한 번을 안 가며 노력한 결과 겨우 그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새로 기회가 찾아오는가 하던 그 때, 화재로 인해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게 되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게 전환점이 되었어요. 당시 복지관에서 일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다친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지요. 그때만 해도 나는 피부관리가 매우 편한 일인 줄 알고 저거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피부관리 교육을 받다가 목욕탕에서 처음 피부관리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격증을 따기 전인지라 낮은 가격을 내세운 피부 관리는 성공적이었다. “장사가 정말 잘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에

게는 그게 더 좋은 일이 되었지요. 거기서 옮겨갈 곳을 보게 되었는데, 장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게 보증금 낼 돈이 안 되잖아요. 저기서 하면 정말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아등바등하던 그때,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은 거지요.”

김주현 사장은 2010년 ‘희망키움뱅크’의 지원을 받으면서 한국여성재단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희망키움뱅크는 보건복지부의 소액창업자금대출사업으로 한국여성재단은 2009년부터 위탁을 받아 여성가장들을 중심으로 창업지원을 해왔다. “당시에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가게 전세금을 마련해 창업을 했어요. 가게를 창업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거기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서 애들 학교 보내고, 빚도 다 갚고 한 거예요.”

많은 고비들을 넘어 어렵게 찾은 안정인 만큼 그 상태에 만족하며 지낼 수도 있건만, 김주현 사장은 도전을 시도하여 마침내 특허를 획득하는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냈다. “처음에는 남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제조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위험부담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시제품을 만들어 낸 거예요. 문서도 만들 줄 모르고 기계에 대해서도 모르고, 과연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에 주차장에서 몇 시간을 울었던 적도 있어요. 그렇게 울고 나서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 무조건 부딪치고 보자고 각오를 했지요.” 그 과정을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지역사회 내의 부산여성창업보육센터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뛰어온 김주현 사장의 다음 꿈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나중에 우리 지점들이 자리가 잡히면 전국의 지점들이 한 달에 한 번은 같은 날 무료봉사를 하자. 그런 꿈이 있어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 사람들이 씬을 얻고 치유될 수 있는 도심 속의 힐링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가장들에 대한 응원도 잊지 않았다. “여성가장들이 남자들보다 씬씩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홀로서기 하면 좋겠어요. 사실 좋은 점도 많잖아요. 저는 남편이 있었으면 그만큼 시간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혼자이기에 일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한부모 여성가장들과 만날 수 있으면 힘든 부분을 공유할 수 있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웠던 순간들을 이겨내고, 이제는 치유와 나눔의 희망을 키우고 있는 그녀. 그녀가 꿈꾸는대로 씬씩하고 당당하게 성공하기를 바란다. 

모든 경계엔 꽃이 핀다 -다문화사회를 향하여 2012 BB희망날개 윙크페스티벌



낮설음, 혹은 배려의 이름으로 그녀와 나를 구별하기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수는 144,681명으로 전체 인구의 0.3%에 해당하고, 이들을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4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를 차지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숫자 상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순혈주의 전통을 오랫동안 학습한 사회가 다문화사회를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만 보아도, 이주여성

책의 틀 내에 국한시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시혜를 베풀어야 하는 측은한 대상으로 타자화하거나, 하루 속히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익혀 한국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동화정책에 집중되어왔다는 지적이 많다. 비단 정부 정책만은 아닐 것이다. 생활현장에서 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으로는 낮설음으로 인한 경계와 거부, 다른 한편으로는 배려라는 이름으로 시혜를 베푸는 자와 받는 자(또는 받기만 하는 자)로 선명한 금을 긋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라는 개념이 전제하는 것은, 일방의 문화적 통합이 아니다. 문화적 다양성의 공존 **multi-culture**, 그리고 여기에서 나아가 문화 간 **inter-culture** 소통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여성들 스스로가 가진 다

양한 문화적 정체성들이 적극적으로 발현되고 존중될 때, 그리고 그들과 우리의 문화가 소통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들과 우리 사이에 놓인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다.

경계를 지우는 소통의 힘, 문화

지난 10월 13일(토) 서울 용산가족공원에서 문화 간의 소통을 시도하는 축제 '2012 BB-Bi-culture, Bi-lingual 희망날개 윙크페스티벌'이 열렸다.

한국여성재단이 2011년부터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 이주여성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문화적 소통과 교류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다문화여성 문화커뮤니티들을 지원해온 사업의 결실을 나누는 자리였다. 총 20개의 문화커뮤니티가 축제의 장에서 쌓아온 기량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장에는 흥분과 기대 속에 공연을 선보이는 이주여성들의 자부심과 가족과 친구들의 응원과 격려의 열기가 넘쳤다. 레인보우 퍼포먼스팀과 미디어 자조모임, 오라차차 삼장법사팀은 그들 스스로가 기획하고 연출한 뮤지컬과 영상을 통해 한국생활에서 이주여성들이 겪는 문제와 어려움을 그녀들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함으로써 큰 울림을 가졌다.

이번 공연이 흥미로웠던 점은 여느 다문화 축제와 달리 나라별 전통문화를 선보이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에 함께 어울렸다는 것이다. 태국의 전통춤을 선보였던 랍타이의 경우, 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필리핀 이주여성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이주여성들이 참여한 오산 화성 이주여성모임은 다양한 나라에서 사랑받는 대중가요들을 합창으로 선보였다. 난타 공연을 펼친 '인타 클럽' 역시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여성들이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각자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존중 속에서 문화 간 소통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생산해낸다는 것. 이들의 공연 자체는 이미 소통의 단순한 결과물을 넘어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공연을 관람했던 시민들과도 소통하는 시간이었으니 문화 간 소통의 그물망이 실로 크고 복잡적이다.

문화 간 대화(Intercultural Dialogue)가 만들어 낼 우리의 하모니를 상상하다

이날 레인보우 퍼포먼스팀에서 공연하는 형수에게 응원차 왔다는 전영식씨와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형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주여성에 대한 어두운 이미지가 있었는데, 직접 이주여성들을 만나다보니 보통의 우리들과 차이가 없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내년 어머니의 칠순을 맞아 11명의 일가 모두가 함께 형수의 친정인 베트남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는 아직 형수의 모국인 베트남에 대해 단어 몇 가지 아는 정도이지만, 내년 방문에서 베트남 문화를 많이 배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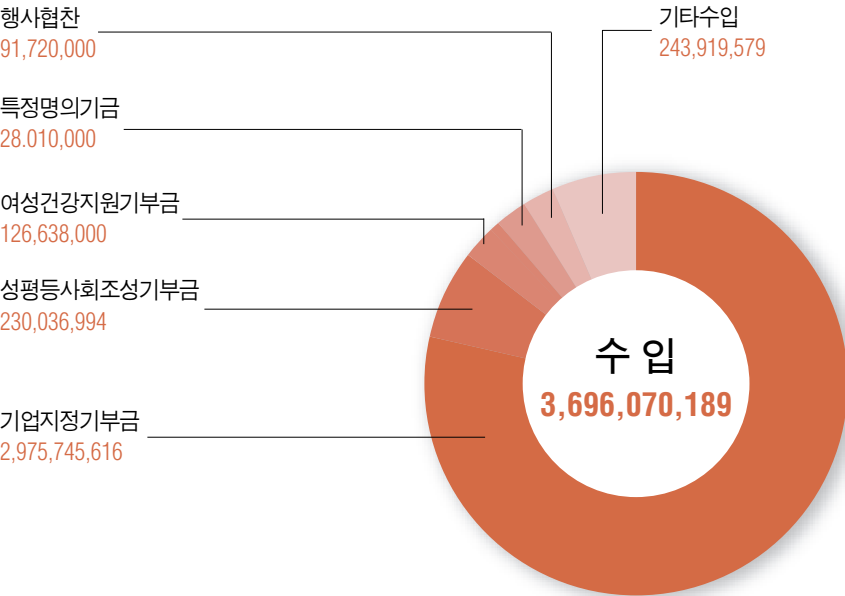
"우리는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친구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아까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다루는 북도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각자 다른 파트를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음악으로 만들어 내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관계도 다 다른 국적에 다른 문화를 바탕으로 하지만,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타 클럽의 요시다 가즈에 회장의 말처럼, 우리 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소통할 때 만들어질 하모니. 기대되지 않는가. **W**

수입

기간 : 2012.1.1 ~ 2012.10.31

단위 : 원

항 목	내 용	금 액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기탁 사업지원 물품기부 등	2,975,745,616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100인기부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만만클럽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콩기부 싸이월드 기부 카드포인트 기부 등	230,036,994
여성건강지원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126,638,000
특정명의기금	고사리손기금, 애경산업기금 등	28,010,000
행사협찬	다문화가정사진전 등 행사협찬	91,720,00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등	243,919,579
	총수입	3,696,070,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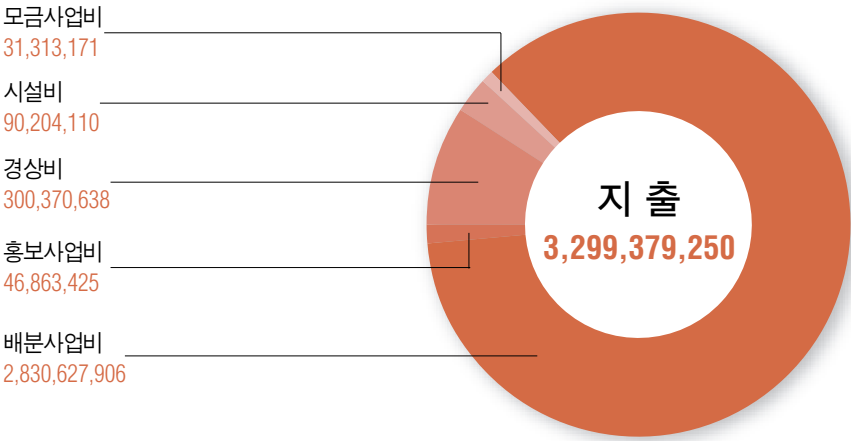


지출

기간 : 2012.1.1 ~ 2012.10.31

단위 : 원

항 목	내 용	금 액
모금사업비	모금행사,기부자관리 등 경비	31,313,171
배분사업비	1. 성평등사회조성사업 ·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고사리손기금 2. 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 (CJ) · 날자 프로젝트-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 다문화여성 행복스타트-사회적응, 사회활동 지원사업 (우정사업본부) · 다문화가정 자녀 1:1 희망 멘토링 (LGI노텍) · 다문화가정 아동 리더십개발 멘토링 (외환은행나눔재단) · BB희망날개-다문화가정 여성 커뮤니티 지원사업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 미혼모 삶의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 (주)NHN 농산촌지역 아동도서관 3.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 짧은여행 · 긴호흡, 도움닫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 여성NGO정학사업 (유한킴벌리, 상지대, 성공회대) · 시설개보수사업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 기업지정사업 등 4. 사회적 돌봄사업 ·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육서비스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2,830,627,906
홍보사업비	소식지, 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홍보영상물 제작 등	46,863,425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300,370,638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90,204,110
	총지출	3,299,379,250



2012년 9,10월 개인 기부자 명단

보내주신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금김단고	강경림	강경희	강덕주	강덕	강도연	김영길	김영남	김영란	김영래	김영미	김영미	모은영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금소
강명숙	강병진	강미라	강미정	강민아	강범희	김영미	김영남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숙	문금주	문길화	문영숙	문영숙	문영훈	문미란
강보소	강보근	강석기	강성태	강순애	강수현	김영선	김영선	김영식	김영아	김영옥	김영옥	문미애	문보희	문보소	문새미	문성원	문숙남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양숙	강연조	강원화	김영옥	김영옥	김영원	김영자	김영자	김영자	문순민	문은영	문인선	문인숙	문재웅	문재호
강은나	강인수	강재훈	강종원	강주란	강지현	김영자	김영주	김영주	김영준	김영채	김영하	문정례	문진석	문재희	문희화	민기영	민경주
강진애	강대영	강현선	강현숙	강현숙	강현옥	김영하	김영훈	김영희	김영희	김오목	김옥분	민옥기	민용자	민형태	민홍석		
강성애	강희갑	강호찬	강한숙	강하숙	강준옥	김옥은	김옥천	김용관	김용익	김우술	김우항						
고경표	고경희	고명희	고보성	고복신	고영아	김운주	김원희	김유미	김유미	김유은경	김유진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숙	박경순	박경순
고영주	고오한	고효철	고효진	고은재	고정원	김윤경	김윤경	김윤정	김윤주	김운주	김윤지	박근아	박경연	박경자	박경희	박광훈	박근영
고주형	고현숙	고현칠	고희경	고희숙	공민옥	김윤철	김은경	김은경	김은경	김은미	김은미	박근희	박근래	박국희	박기순	박기득	박길애
공명숙	공선영	공복록	공인자	곽선영	곽민숙	김은미	김은진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순	박노숙	박대근	박국렬	박동연	박기옥	박달애
곽옥자	곽옥규	곽은숙	곽지혜	곽희환	구민수	김은실	김은아	김은아	김은아	김은영	김은영	박명자	박명주	박묘진	박미라	박미란	박미선
구본경	구상권	구슬기	구영남	구민자	구영선	김은정	김은정	김은정	김은주	김은주	김은진	박미진	박미향	박미희	박민숙	박민연	박민희
구옥순	구은경	구은진	구자민	구준자	구홍분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근	김이순	김은진	박민희	박민희	박병희	박보환	박사유	박삼숙
구태희	구창지	구현주	국미애	국영자	권경옥	김인섭	김인수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박상봉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선영
권광자	권금주	권기석	권나실	권미숙	권민경	김인소	김인소	김인자	김인춘	김자현	김장림	박신인	박신자	박성민	박성택	박성희	박소연
권민영	권민정	권상진	권소선	권소숙	권순우	김장호	김재구	김재민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박소신	박수미	박수영	박수진	박수희	박숙희
권소형	권소희	권성희	권애원	권양희	권영빈	김재호	김재현	김재춘	김재현	김재현	김정옥	박소공	박수규	박수옥	박수순	박수희	박수금
권영선	권영순	권영애	권영옥	권오일	권은숙	김정규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린	김정미	박승일	박승진	박신규	박선연소	박애경	박연라
권은혜	권인숙	권주미	권진희	권태영	권태희	김정미	김정민	김정선	김정선	김정숙	김정숙	박영민	박영성	박영숙	박영숙	박영숙	박영아
권태희	권혁주	권해경	권해영	권해영	권숙희	김정숙	김정순	김정순	김정순	김정은	김정은	박영준	박영희	박영숙	박영필	박용민	박용보
금경림	김형진	김갑소	김강식	김근우	김경구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자	김정자	김정현	박용삼	박용선	박용훈	박원희	박은민	박은위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민	김경석	김경섭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종규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래	박이순	박재석
김경숙	김경숙	김경숙	김경순	김경소	김경식	김종덕	김종옥	김종주	김종철	김종화	김종희	박재옥	박정례	박정미	박정자	박정숙	박정숙
김경식	김경아	김경애	김경원	김경일	김경자	김주미	김주미	김주원	김주현	김주현	김준승	박정소	박정영	박정일	박정자	박정자	박정진
김경환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계숙	김준희	김준희	김지란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박정혜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	박종남
김공태	김광미	김광수	김광옥	김광웅	김광이	김지은	김지일	김지행	김지형	김지혜	김진명	박종소	박종호	박주미	박주희	박준영	박준옥
김광자	김광재	김광하	김국찬	김국식	김규태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용	김진용	김진영	박준호	박지영	박 지	박진아	박진연	박진주
김광영	김근희	김래미	김기선	김기선	김기숙	김진주	김진태	김진희	김진희	김차소	김창규	박진환	박찬범	박찬진	박치원	박치원	박태훈
김길아	김나영	김남옥	김남주	김남호	김다영	김창근	김창연	김창재	김철소	김철홍	김형희	박한솔	박 한	박한경	박한소	박현신	박한자
김대규	김대소	김대영	김덕선	김덕식	김덕일	김춘미	김춘지	김춘희	김태서	김태소	김태연	박현정	박현정	박현희	박형주	박해란	박혜숙
김도경	김도현	김동성	김동숙	김동식	김동애	김태연	김태옥	김태환	김택숙	김학복	김혜조	박혜소	박혜소	박혜진	박홍소	박학소	박효숙
김동우	김동천	김동호	김동희	김두용	김둘순	김행옥	김행민	김행미	김한관	김현/김진정	김현정	박홍철	박홍희	박희선	박희숙	박희옥	박진애
김득현	김민한	김말희	김매화	김명동	김명성	김현미	김현미	김현미	김현숙	김현숙	김현실	방선주	방성희	배경수	배선혜	배선희	배수경
김명숙	김명숙	김명옥	김명옥	김명희	김명일	김현옥	김현옥	김현자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배숙일	배영숙	배정미	배정민	배종희	배한영
김영일	김영진	김영혜	김영희	김영희	김유진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배경남	배경원	배경자	배경희	배선희	배성래
김문희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형경	김형성	김형재	김해련	김해련	김해리	백순애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옥남	백용호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란	김미림	김미봉	김혜미	김혜숙	김혜순	김해연	김해영	김해옥	백인선	백춘현	백형철	백학선	변보석	변성윤
김미분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소	김미옥	김혜은	김희정	김호진	김홍기	김홍자	김효선	변영선	변영희	변용태	변정선	변화순	북진수
김미자	김미정	김미정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효순	김희정	김희경	김희소	김희연	김희옥	봉성근					
김미희	김민성	김민영	김민영	김민예숙	김민정	김희정											
김민자	김민진	김민희	김병관	김병준	김보라												
김보연	김복옥	김봉경	김봉일	김봉춘	김분기												
김성분	김성숙	김성숙	김성진	김성환	김성훈	남경희	남명순	남미정	남숙영	남신석	남윤인순	서영성	서영철	서우찬	서정미	서정성	서정숙
김상희	김상희	김생기	김서현	김석준	김선미	남정민	남진숙	노무현	노선숙	노영숙	노옥련	서정재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김선복	김선소	김선영	김선영	김선영	김선하	노 원	노윤범	노영자	노은숙	노은하	노의정	서진숙	서정경	서현숙	서희주	석리나	석미영
김선희	김선희	김선경	김성분/장미영/장태영			노재희	노정섭	노양소	노하정	노현준	노형수	석미하	석미하	석진경	석경미	석애령	석영현
김성숙	김성월	김성진	김성태	김성호	김세화	노형준	노정진	노희정				석용원	선길자	선은주	선진국	설경중	설영수
김세희	김소현	김수경	김수근	김수영	김수영							성경남	성고은	성명정	성용철	성은숙	성인소
김수자	김수진	김수한	김수현	김수희	김숙경							성정현	성지희	성현녀	성형주	소옥녀	소희라
김숙자	김숙성	김숙연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손바희	손만소	손병근	손석철	손소운	손소연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례	김순복	김순애							손갑구	손연숙	손영숙	손유이	손재광	손정길
김순연	김순열	김소영	김순자	김승규	김신원							손현숙	손현옥	송금옥	송금희	송민수	송기향
김실환	김애숙	김애순	김영희	김양자	김양자							송다현	송미경	송미영	송미희	송민수	송방희
김양희	김려연	김연미	김연소	김연화	김연희							송상희	송세령	송수자	송숙희/한동호	송인연	
						류명성	류시현	류영선	류인혜	류재옥	류준희						
						류태한											
						마경희	마선자	마춘자	맹화경	맹옥희	맹진숙						

송영선	송영국	송영소	송예숙	송윤희	송은영
송은혜	송은주	송재용	송정아	송정호	송철호
송헌원	송헌부	송헌진	송혜영	송희재	송수정
신대환	신동철	신동화	신명소	신미란	신미숙
신민아	신봉남	신봉선	신선미	신소영	신승희
신영미	신영희	신용선	신용현	신은설	신은숙
신의국	신인철	신재성	신지원	신진남	신진연
신춘화	신현인	신현정	신혜숙	신희상	신희상
신희숙	신희문	신희필	신희정	신희애	신희영
신희주	신희보	신희춘	신희희	신희학	신희순
실험춘	실험은	실험경	실험연		

아이미유카	아이미	카코스	브러쉬	주식회사	안경자
안기화	안기재	안덕남	안봉소	안민란	안민영
안기화	안인석	안병철	안봉순	안진진	안진영
안성희	안세준	안소연	안숙경	안순화	안순동
안승국	안시애	안진호	안재철	안재희	안준호
안지현	안지혜	안진호	안필남	안혜경	안현희
안금순	안도숙	양미선	양미현	양가자	양득석
양서량	양세경	양오식	양옥선	양은석	양이숙
양달순	양태성	양태경	양현자	양현정	양현선
양영선	양영선	양영경	양영희	여귀준	여현선
양재숙	양택익	양타로	예스케이	이허준	케이선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사)		여진경	
연미자	연미희	연미화	연인순	예덕임	예은숙
오경철	오금희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미향
오성인	오세령	오수진	오수정	오수환	오승동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재국	오정숙
오정호	오지섭	오지영	오준희	오재원	오정호
옥지영	옥진숙	왕성국	왕인순	왕정순	우대석
우미숙	우상숙	우해경	울산여성전화		웃으리
원경자	원국숙	원동길	원유성	원혜차	위소숙
유경미	유영희	유난희	유영숙	유진기	유선희
유숙자	유수복	유순희	유승희	유영미	유영실
유옥목	유윤임	유은자	유은주	유은총	유일영
유재경	유정미	유정숙	유정자	유정희	유정희
유지숙	유현정	유희숙	유희화	유희정	유희정
육성희	육근정	윤경숙	윤계원	윤귀보	윤남희
윤발이	윤미리	윤미재	윤민아	윤비연	윤선정
윤순구	윤순남	윤영경	윤영미	윤영정	윤영옥
윤옥경	윤옥정	윤은영	윤은경	윤은정	윤은희
윤유진	윤재환	윤정보	윤정보	윤정자	윤정희
윤정희	윤창희	윤해옥	윤혜영	이가운	이기환
이가희	이강선	이건우	이건정	이경미	이경선
이경순	이강선	이강우	이경자	이경자	이경선
이경희	이계경	이관호	이광미	이광우	이광호
이광명희	이권현	이귀연	이귀우	이규백	이규선
이근재	이근현	이금녀	이금복	이금순	이금자
이기선	이기화	이기인	이남희	이덕남	이덕민
이덕중	이덕혜	이도형	이동훈	이동희	이려영
이리화	이명순	이명옥	이명자	이명화	이문숙
이미경	이미경	이미소	이미숙	이미숙	이미숙
이미열	이미영	이미영	이미영	이미용	이미숙
이미정	이미정	이미진	이미향	이미향	이 민
이민경	이병미	이병도	이보희	이복순	이복희
이봉찬	이상미	이상민	이상영	이상희	이상영
이선례	이선미	이선미	이선영	이선숙	이선옥
이선이	이선이	이선자	이선필	이선희	이선희
이성규	이성열	이성은	이성은	이성일	이성희
이성현	이성희	이소영	이소형	이소희	이소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연	이수연	이수옥	이수아
이수인	이수정	이수정	이수진	이수현	이수훈
이수희	이숙인	이숙향	이숙현	이숙희	이순덕
이순섭	이순오	이순옥	이순임	이소하	이소하

이순희	이순희	이승수	이승우	이승자	이승
이승현	이승현	이승희	이승희	이심옥	이성
이안나	이애란	이양주	이연주	이여정	이연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영고	이영기	이영
이영수	이영수	이영숙	이영숙	이영순	이영
이영우	이영임	이영자	이영주	이영주	이영
이영현	이영혜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영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옥희	이원정	이원
이웅성	이웅정	이윤찬	이원태	이원유	이유
이유성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열	이윤
이유희	이유진	이은수	이은숙	이은숙	이은
이은수	이은영	이은영	이은우	이은정	이은
이은희	이은희	이은희	이은희	이은수	이은
이의환	이익주	이인숙	이인숙	이인숙	이인
이인우	이인우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자
이재숙	이재순	이재옥	이재춘	이재한	이재
이정순	이정민	이정진	이정희	이정숙	이정
이정옥	이정현	이정은	이정자	이정자	이정
이제영	이종남	이종순	이종용	이종해	이종
이종복	이주현	이주홍	이주희	이주희	이주
이종배	이지리	이지숙	이지연	이지연	이지
이지원	이진석	이진수	이진숙	이진아	이진
이창하	이철수	이철순	이창자	이춘아	이차
이태용	스타파	이태원	이태현	이태화	이태
이파라	이필영	이하린	이하진	이해경	이해
이현미	이현숙	이현숙	이현순	이현준	이현
이현진	이형근	이혜경	이혜란	이혜순	이혜
이혜영	이혜희	이호태	이호만	이호선	이호
이호준	이호태	이홍제	이화숙	이환국	이화
이효정	이후영	이후재	이희석	이희숙	이희
이희숙	이희원	이희정	익명	임경덕	임경
임경숙	임강아	임경옥	임강자	임희희	임덕
임선희	임선희	임성무/김말순	임성택	임수	
임영미	임윤남	임윤순	임윤영	임윤임	임윤
임영미	임영숙	임영주	임용태	임유익	임정
임정혜	임진식	임진철	임춘근	임태환	임현
임현주	임혜진	임호근	임홍서		
자숙예	장경월	장경혜	장금옥	장기정	장길
장남준	장덕현	장동태	장명련	장명숙	장명
장미정	장미정	장봉화	장소연	장소현	장소
장수화	장승현	장애화	장연수	장연숙	장연
장영아	장영임	장영혜	장옥형	장은선	장은
장인선	장재철	장자아	장정희	장정희	장태
장필화	장해경	장학재	장해경	장혜숙	장혜
장혜자	장혜진	장혜현	전구주	전남비	전미
전미향	전민경	전봉순	전수경	전수봉	전수
전순선	전순형	전영숙	전영미	전영애	전영
전옥순	전요정	전영숙	전우선	전현수	전현
전은정	전진희	전홍선	전진숙	전진영	전진
전현정	전현주	전혜경	정경삼	정경수	정경
정구선	정규정	정근아	정길석	정길실	정힐
정각주	정각주	정덕희	정영숙	정호희	정희
정미선	정미자	정미혜	정미화	정민수	정민
정삼여	정삼남(조성)	정성철	정삼미	정선	정선
정선영	정성명	정성태	정성화	정성희	정성
정숙윤	정순주	정승희	정선희	정선희	정순
정영숙	정영애	정영오	정영지	정옥영	정옥
정유주	정원영	정원용	정원희	정유연	정유
정윤주	정윤현	정은경	정은선	정은수	정은
정은화	정인선	정인화	정인호	정재실	정재
정점순	정점숙	정점옥	정정희	정지용	정지
정진옥	정찬숙	정찬자	정현	정현미	정현
정현아	정혜현	정혜자	정혜경	정민진	정민

정희경	정희영	정희철	제승욱	제승여	조갑
조경미	조경자	조광행	조광호	조관중	조규
조기환	조명수	조명숙	조명용	조미래	조미
조미진	조범신	조복희	조상래	조성덕	조성
조성민	조성욱	조성자	조성환	조성희	조세
조수영	조승호	조승희	조양민	조연숙	조연
조영란	조영숙	조영순	조영진	조영진	조영
조옥라	조옥화	조완연	조용숙	조윤세	조윤
조은영	조정란	조정숙	조지연	조진희	조진
조정희	조정희	조주현	조지숙	조지현	조준
조판용	조혁중	조현덕	조현주	조 형	조혜
조혜련	조혜수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조흥
주경은	주명희	주미영	주석중	주선숙	주양
주 영	주영숙	지상구	지숙자	지이용	지일
진동국	진미숙	진소미	진주미		

차경선	차세원	차승연	차재명	차주영	차진
차철용	채금순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지
천병식	천소연	천영희	천희란	최경수	최경
최경식	최경숙	최경숙	최경애	최경애	최경
최길성	최길용	최희동	최도래	최동길	최막
최문영	최문희	최미경	최미애	최미희	최병
최보솔	최봉희	최삼덕	최석준	최선아	최성
최성철	최승실	최수경	최수진	최수진	최수
최수환	최소복	최순옥	최소임	최신아	최애
최양호	최영숙	최영옥	최옥숙	최은정	최원
최유경	최유진	최유진	최윤희	최윤희	최원
최은정	최은주	최은주	최은미	최 인	최인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재성	최재숙	최재
최정순	최정아	최정윤	최정은	최정은	최정
최종오	최종순	최지원	최 진	최진희	최태
최하늘	최해정	최형자	최향희	최현수	최현
최현주	최현진	최현진	최현호	최현희	최형
최형숙	최형욱	최화숙	최화연	최효진	최희
최희화	추교훈	추연진			

탁은숙					
-----	--	--	--	--	--

편민자	평혜연	표근애/표일용	피선희		
-----	-----	---------	-----	--	--

하경란	하기옥	하두련	하만호	하미화	하성
하소원	하영희	하예자	하윤숙	하태성	하향
하현정	하현주	한명희	한미순	한미옥	한미
한미희	한민경	한민숙	한병숙	한수옥	한순
한승호	한아름	한애자	한옥경	한영호	한영
한은숙	한일순	한재주	한정희	한정희	한지
한혜경	한혜준	함수진	함승희	함윤경	함정
해승학범	해피빈	해남선	해명지	해미영	해선
허성우	허소연	허순자	허신학	허유진	허윤
허은실	허은실	허정옥	허해영	허호영	현선
현준식	형시연	홍서후	홍옥희	홍근혜	홍금
홍기태	홍미경	홍미리	홍미진	홍삼옥	홍성
홍석보	홍선녀	홍선영	홍성선	홍성혜	홍성
홍순명	홍영구	홍영애	홍영영	홍예진	홍용
홍은희	홍인숙	홍정아	홍정인	홍진선	홍춘
홍현호	홍현희	홍형정	황경민	황경자	황규
황다혜	황미영	황미정	황금진	황삼국	황순
황시연	황옥려	황은주	황은지	황은진	황인
황인섭	황인자	황인희	황정성	황정아	황정
황진혜	황진택	황환영			

풀뿌리여성활동가 간담회

한국여성재단은 '대안적 돌봄사회와 여성리더십' 미션 사업을 기획하고자, 지난 10월 15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풀뿌리 여성활동가들을 초대하여 풀뿌리여성운동의 현황과 향후 지원방향에 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활동가들은 생활 현장에서 여성 주민 리더십의 성장이 주목받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리더십 교육 지원과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풀뿌리운동은 일반화하기 어렵고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수도권만이 아닌 다른 지역의 풀뿌리여성활동가들과도 소통의 자리를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2012년 성평등사회조성 및 미혼모삶의질향상을 위한 공모사업 중간간담회

2012년 '성평등사회조성' 및 '미혼모삶의질향상을 위한 공모사업' 중간간담회가 지난 10월 16일 한국여성재단 1층 교육장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여성재단은 공모사업 진행 파트너 단체와 재단, 파트너 단체 간의 상호 이해도 향상 및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매년 중간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날 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 기부금으로 조성되어 지원되는 두 사업의 특별함을 소개하고 여성이 보다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파트너단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국여성재단 최유진 배분위원은 '지원사업보고서에 계량화된 수치로서의 결과뿐 아니라 지원사업이 참가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였다. 2012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20개 파트너 단체 사업담당자들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는 3개의 분임토의와 종합토론 시간을 통해 사업 진행과정 상의 어려움과 성과 등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2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도움닫기> 기획 '여성단체 리더를 위한 휴먼브랜딩'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의 지원으로,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10월 24일(수)~10월 25일(목) 1박 2일에 걸쳐 파주 지지향에서 여성단체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휴먼



브랜딩' 교육을 진행하였다. 본 교육은 여성단체 리더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정도로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환경에서 자기다움을 발견하고 자신의 아이덴티티 키워드를 발견하여 리더 개인과 단체의 정체성을 정비하고 소통 확대를 위한 표현방법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 진행되었다. 본 교육에는 서울, 수도권을 비롯하여 경남, 제주 지역의 여성활동가 30명이 참여하였으며,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격려하는 가운데 네트워킹의 효과를 얻기도 하였다. 한국여성재단은 11월 20일(화)에 새로운 여성활동가 16명을 초대하여 올림픽공원 <소마미술관>에서 휴먼브랜딩 2차 교육을 진행하였다.

한국여성재단 최초 제작지원 영화 <미쓰마마> 개봉

지난 10월 18일(목), 한국여성재단이 최초로 제작지원한 영화, '결혼하지 않은 엄마들의 유쾌한 이야기' <미쓰마마>가 전국 13개 상영관에서 개봉했다. 한국여성재단은 미혼여성의 출산에 따른 사회적 편견을 넘어, 양육미혼모의 자녀양육권과 행복권을 보장하고,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미혼모가족이 다른 형태의 가족과 동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양육미혼모 관련 사업들을 지원해왔다. <미쓰마마>는 한국여성재단이 미혼모와 자녀들에 대한 대중인식 개선을 위하여 3년간(2010년~2012년) 제작 지원하여 만들어진 영화로, 본 영화의 국내외 배급 수익금의 일부는 다시 한국여성재단에 기부되어 양육미혼모 지원 사업에 후원될 예정이다.



2012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육사업 보육사대회

한국여성재단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후원으로 2010년부터 추진해온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육사업'의 현장 보육사들이 11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모였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 지원을 위해 애쓰시는 보육사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그들 간의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국 차원의 네트워크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으며, 5개 지역에서 50여명의 보육사들이 참석하였다. 2012년 현재, 한국여성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대도시 저소득 밀집지역(광주, 부산)과 농산촌 지역(충북 제천, 경북 봉화, 전북 완주)에서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육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 생활·이용시설 및
비영리 여성단체 2012 시설개선사업**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2009년부터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여성 생활·이용시설 및 비영리 여성단체의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 내 소통할 수 있는 여성 대안공간을 창출하는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여성 이용시설 및 단체의 욕실·화장실 개보수를 지원하는 'Happy Bath, Happy Smile 사업'과 아모레퍼시픽의 'ARITAUM' 디자인을 적용한 대안 공간 리모델링 사업 'ARITAUM in U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2012년 'ARITAUM in U 사업'으로 선정된 7개소 중, 대구북구여성회와 울산여성회 울주군지부의 리모델링이 완공되었으며, 'Happy Bath, Happy Smile 사업'으로 선정된 3개소 중 부산여성사회교육원, 통영YWCA,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돌봄터의 공사가 완공되었다.

우체국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생활경제교육

한국여성재단은 우정사업본부의 후원으로 지난 10월부터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다문화 생활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4개 지역(대구, 경기 평택, 서울 양천, 서울 중랑)에서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다문화여성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활동 및 적응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행복스타트 프로젝트' 사업에서 기획된 교육으로, 특히 재무관리에 취약한 다문화가정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금융 관리 방법, 저축 늘리기, 부채 줄이기 등에 대한 생활경제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생활경제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다문화가정의 건강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본 교육에 대한 후원뿐만 아니라 금융 및 보험과 관련된 소비자교육과 관련된 강의를 직접 담당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참가자들로부터도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당신의 후원으로 딸들이 활짝 웃습니다.

안전 · 안심 사회를 만드는 만만클럽에
매달 1만원 후원회원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안전 · 안심 사회 만들기

- HOPE-Livelihood 폭력피해 생존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
- HOPE-Campaign 안전 · 안심에 대한 국민 감수성 제고 캠페인
- HOPE-Education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와 확산

문의 및 신청 02-336-6364 www.womenfund.or.kr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직접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이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지역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댓글을 달기만 해도
트위터, 페이스북에 보내기만 해도
카페나 블로그에 담기만 해도
피해자 및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액이 모아집니다.
작은 참여가 모여 이루는 큰 변화!
그 꿈을 이루는 것, 어렵지 않아요!

모금캠페인 기간: 2012.11.15~12.14

기부하기

1. 다음 희망해 → 클릭!
2. 희망모금 → 클릭!
3. 모금중 → 클릭
4. 우리이웃모금 → 클릭!
5. 영화 도가니를 보셨나요? → 클릭!
(제안자: 한국여성재단)
6. 준비 완료!!!
 - ✓ 댓글달기
 - ✓ 트위터, 페이스북에 보내기
 - ✓ 카페나 블로그에 담기
 - ✓ 위젯달기

